

같은 꿈을 꾸는 꿈

하은빈

당신은 분명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국적이 불분명한 채로 꿈의 국경을 넘나드는 그의 직업이 번역가이며, 춤과 시와 꿈을 재료로 하는 그의 작업 또한 그 번역의 산물이라는 이야기를. 그런데 그 의문스러운 번역가의 장기는 이음새 없이 텍스트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텍스트를 누락하고 왜곡하고 변형하고 재편하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당신은 다소 의아했으리라. 정확도를 기하는 데에는 도통 관심이 없다는 그의 작업을 과연 번역이라고 불러도 되는 것일까? 번역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스러기, 잔여물, 각질의 수집과 배열을?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누락하고 왜곡하고 변형하고 재편’함으로써 출현하는 낯선 광경을?

그의 편지가 우체통에 도착한 것은 당신이 그 이야기를 거의 잊었을 때의 일이다.

편지를 앞뒤로 뒤집으며 당신은 어쩌면 어느 밤의 꿈 속 카프카처럼 생각한다. “그것은 내가 기다리던 그 편지가 아니”라고. 편지봉투의 뒷면에는 태연하고 또 뻔뻔하게도 이렇게 쓰여 있다—“답장 주세요.” 당신은 출처 모를 미심쩍은 그 편지를 어쩌면 반송함에 넣을 수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당신 또한 편지를 뜯어보았을 것이다. 꿈 속 카프카가 그러했듯이 말이다. “(…) 내가 봉투를 열자, 안에서 글이 가득 적힌 얇은 편지지가 한없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모두 알

지 못하는 낯선 필체이다. 나는 읽기 시작한다.”¹

그러나 그 편지, 제각기 다른 크기와 질감과 두께의 종이에 인쇄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듯이 공들여 적히고 접히고 감싸진 줄글들은 당신에게 낭패감을 준다. 당신은 그 내용을 좀체 알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함께 꿈을 꾸고 말 것이다.”²라는 그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편지들은 이해받기 위해 애쓰지도 않고 이해받기를 욕망하지도 않는다는 듯이 서로 무관하고 불가해한 별자리를 이루고 있다. 당신이 아무리 접히고 접친 종이를 펼치고 넘기고 뒤적이며 꿈 조각의 귀퉁이들을 맞추려 해도 글들은 누군가 잘못 섞어놓은 퍼즐처럼 흐트러진다. 마치 그 길잃은 자체가 그가 오롯이 옮기고자 한 꿈의 경험이라는 듯이.

편지에는 꿈의 글들 외에도 우표와 구체적인 주소가 적힌 빈 봉투가 동봉되어 있다. 번지수와 우편번호까지 정확히 기입된 주소만이 이 편지를 실제적인 사물로 만드는 유일한 요소다. 그것이 정말로 유효한 주소일까? 그곳이 그가 거주하는 곳일까? 그러나 소문대로라면 그는 꿈의 국경을 넘나드는 국적불명의 사람이 아니던가. 당신은 미심쩍은 마음으로 답장을 적어 부친다. 그것은 간밤에 남은 꿈의 일부였을 수도, 일기의 조각이었을 수도, 어느 날에 쓰여진 시였을 수도, 옮겨 적어둔 노래 가사의 두어 구절이었을 수도 있다. 그가 받았을 다른 답장들은 으레 그런 것들이었을 테니까. 서로 교환되지 않는 논리의 사건들, 풍경들, 무료하고 울퉁불퉁하며 아름답고 불가능한, 어느 분실물 보관소의 장기입주자가 되어버린 사물들이 밤마다 제각기 꾸는 꿈들.

1 이 문단의 인용은 모두 다음의 글에서 발췌하였다. 프란츠 카프카, 『꿈』, 배수아 옮김, 워크룸프레스, p70.

2 1부 우편공연 《몽상가의 편지》 “작가의 말”.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당신은 어느 멀고 외진 전시장에서 그를 다시 기억해낸다.

반투명한 천을 하나둘 통과한 당신은 우물처럼 우묵한 공간 깊숙이서 영상 하나가 반복해 흐르는 것을 본다. 천천히 움직이는 몸 위로 반복되고 변주되고 중첩되는 낭독의 발화가 켜지고 포개지고 겹쳐지는 영상이다. 국문과 영문으로 동시에 제시되는 글자들이, 누군가의 “꿈계 굵은 등”³의 표면으로 스르르 투영되었다 사라지기를 거듭하고 있다. 그 텍스트가 어쩐지 귀에 익다. 오래 애쓴 끝에 당신은 낭독되고 있는 텍스트의 출처를 가까스로 기억해낸다. 그것은 그에게서 받은 편지에 있었던 텍스트 중 하나다.

비로소 당신은 그 말들을 받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등이라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다. 잠든 등, 꿈꾸는 등, 가파르게 증폭된 음량의 앰비언스 속에서 어느 순간 끝도 없이 확대되는 등. 그의 등진 몸은 이쪽으로 조금 비틀린 채 느리고 천천한 춤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 등 위로 당신이 출처를 기억해낸 그 말들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닿고자 하는 청자에게는 결코 닿지 않는다는 점에선 연약하고, 몇 번이고 또다시 되돌아온다는 점에선 불멸인 말들. 당신은 그가 고개를 돌려 이쪽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의 등은 마치 단호하고 결연한 오르페우스의 등처럼 좀체 이쪽을 돌아볼 생각이 없어 보인다.

영상 속에 흐르는 말들에 따르면 그 등이 “뒤돌아 나를 안는” 것은 “영영 헤

3 2부 전시 《우물의 꿈》 중에서 발췌하였다. 이하 출처 표기 없이 인용한 부분은 모두 작중 대사를 가져온 것이다.

어저야만 하는 꿈속에서”의 일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어찌면 이 무정하고 혹독한 등돌림을 당신은 외려 고맙고 다행한 일로 여겨야만 하리라. 그 등이 불현듯 “뒤돌아 나를 안”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영 헤어져야만” 하는 작별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가정에 따르자면 그 등돌림은 줄곧 이 말들(“당신 앞에서 옆에서 곁에서 흘린 수만 개의 단어들”)을 영영 되돌아올 수 있게 하는 조건이 된다. 그 등돌림은 어찌면 외면이 아니라 정청의 제스처이며, 저 등은 단절의 기관이 아니라 듣기 위한 기관이 된다.

그의 편지가 당신으로 하여금 타인의 꿈에 진입하는 불확실한 출입구 앞을 배회하게 했다면, 이 전시장에서 그의 꿈은 한층 더 깊은 곳에 유폐되어 반향을 거듭하고 배회한다. 만나지기를, 조우하기를 바라는 기도문을 영원히 다시 외면서.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서 생각한다. 그렇다면… 새 꿈을 시작하면 혹시 무엇인가가 달라질 수도 있을까? 작별 없는 조우가 일어날 수도 있을까? 서로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이들이, 서로가 꾸고 있는 바로 그 꿈을, 한데서 함께 꿀 수만 있다면.

당신이 그 객석을 찾은 것은 그 사람이 꿈을 상연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관람하게 될 공연의 제목은 《편지는 없고》다. 그 공연이 그가 지금껏 주고받은 편지들로부터 태어났다는 점, 누군가의 편지에서 떨어져 나온 말들이 이 공연을 구성하는 큰 축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상한 제목이다. 당신은 공연의 소개글을 읽는다. “공연이란 애당초 관객의 답장을 기대하지 않는 채로 무

대 위에 쓰여지는 편지”이며 “춤 또한 그 어떤 언어로도 고정되거나 붙들리지 않고 사라지는 시다.”⁴

공연이 시작되면, 당신은 그가 꿈의 무엇을 번역하는지 알게 될지도 모른다. 그 사람이 꿈의 내용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꿈의 상태를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무대에서 꿈이라는 사태에 연루된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꿈꾸려 하는 자, 꿈꾸는 자, 깨어나려는 자, 깨우는 자, 깬 자, 깨지 못하는 자, 자꾸 잠드는 자, 꿈속에서 뒤척이는 자, 꿈속에 있는 자, 꿈꾸는 중에 움직이는 자...”들이 끊임없이 무대 위의 몸을 드나드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는 가위에 눌렸다가, 선잠에 들었다가, 꿈속에서 눈을 뜨고, 꿈 속 사람에게 말을 걸리라. 그 사람은 꿈을 번역하기 위해, 무대 위에서 몸소 꿈을 풀지도 모른다.

공연이 시작되면, 비로소 당신은, 오독이야말로 그 번역가의 장기라는 궤변의 의미를 얼마쯤 이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는 꿈의 번역자이므로. 꿈은 대부분 무의식의 깊은 어둠 너머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므로, 꿈의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선 언어나 이미지, 여타의 도구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꿈을 붙들고 꿈에 개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은 필연적으로 원본의 꿈이 품지 않았던 불순물을 함유하는 일이며, 중국에는 그 불순물에 영겨 붙은 것들만을 겨우 남기는 일이다. 이렇게 보자면 꿈이란 애당초 번역이 불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애초에 ‘있는 그대로’ 경험되는 현상조차 아니다.

그렇다면 유실될 꿈을 일부나마 보존하고 옮기고자 감행하는 이는 역설적

4 2022년 11월 서울무용센터 입주작가 레지던시 결과공유회 쇼케이스 《편지는 없고》 공연소개 글.

이게도 적극적으로 꿈을 희석하고 곡해하고 각색하고 훼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오역이나 위증이라고 오인될 만한 이 과정만이, 바로 꿈의 세계에서 온 자가 꿈을 번역하는 방법이자 자신이 보고 들은 세계를 증언하는 유일한 방도가 되리라는 것을, 하여 불가해한 이미지와 부서진 언어로서만 서로가 꾸는 꿈에 접속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당신은 얼마쯤 알게 될지도 모른다. 그가 받은 편지들, 유실된 편지들의 문장들이 무대와 객석을 떠돌고 서성이는 동안.

공연이 시작되면 당신은 그의 얼굴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당신은 그 사람과 같은 꿈을 꿀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영영 헤어져야만 하는 꿈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는 등을 돌려 당신의 얼굴을 마주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과 그 사람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은 뒤돌아보는 그를 안고 영영 놓아주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아니다. 그것은 그저 꿈일지도 모른다. 공연이란 애초에 그저 우리가 같은 것을 보고 있다는 착각에, 같은 꿈을 꾸는 꿈에 다름 아니므로.

어쨌거나 아직 공연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이 모든 일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당신은 어렴풋이 생각한다.

당신은 분명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